공신력 있는 기준(계란)가격 발표 시스템 모색되어야…

산란계 산업이 성장하면서 계란 유통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계란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가격 DC와 월말결제(일명 후장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으면서 정부에서는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란공판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가격 대표성 문제, 원가상승, 과잉 생산시 대응책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계란가격 발표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생산시 계란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다. 계란은 소비재 중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공산품에 비해 덜지만 계란은 매일 농장에서 쏟아지고 있고, 무한정 재고로 창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결고 싶지만 쉽지 않다. 요즘처럼 대형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계란가격은 양계협회,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전국의 산지가격은 양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가격이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AI 살처분 보상 기준이나 보험금 산정 등의 적용이 양계협회서 발표하는 양계 속보 시세에서 축평원 시세로 바뀌는 등 변
화가 일고 있고 공판장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가격 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자 시세 발표

과거 계란가격은 자연스럽게 시장 흐름에 따라 형성되었다. 시장이 서지 않는 곳에서 보호상들이 직접 다양한 물건과 함께 가가호호를 반복하며 판매하고 했다. 이후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생겨나면서 배달 속도와 배달량이 많아졌고, 차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통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970~80년대에는 계란 생산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자들은 각 지역에 계우회를 결성하고 나름 장관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주로 소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본지(월간양계) 가독을 보면 정당계 계우회와 전호계우회가 수도권에서는 큰 축을 이루며 계란 생산과 유통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979년 11월 계우회연합회가 발족하면서 난가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1982년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재판부대위원회(현 계란위원회)로 흡수, 통합되면서 난가 조사와 발표의 주도가 되었다. 이 같은 가격은 시세업계(현 양계축보)를 통해 발표되면서 공신력 있는 계란가격 발표의 기능을 생산자가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D/C, 후장기 등으로 가격 신뢰도 하락

1990년대 이후 대량 생산체계로 들어서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계란 D/C와 후장기 그리고 날짜 잡어주기 등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생산자들은 유통상인들과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계란의 흐름을 가격에 반영하였다. 1990년 초에는 계란 발표가격과 D/C 차이는 2원을 넘지 않았다. 유통상인들과의 유통비를 주는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었다. 하지만 생산자들과 유통상인들의 거래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날아도는 계란이 담핑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담핑가격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계란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DC가 60원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격 D/C 폭이 크게 벌어지자 현실화라는 이유로 10~20원씩 D/C를 낮추기도 했지만 원천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는 한 달도 안되어 후유증만 남기고 원상태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런 와중에 계란을 수거한 날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말에 후정산을 하다 보니 생산농가는 판매가격도 모든 채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
이슈 따라잡기  계란가격 결정 구조의 변화

는 구조가 되었다. 양계협회에서 발표하는 계란가격은 10인 전후로 구성된 10가수들이 각종 시장 상황을 종합하여 필요할 때마다 계란가격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양계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이 수속력이 없는 참고가격(농가회망가격) 역할을 할 뿐 발표 가격 자체가 D/C 차이 등으로 현실감을 잃을 때가 있어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 필요

그 외에도 정부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계란가격 조사 발표를 시작하면서 양계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과 혼선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양계협회 발표가격은 계란 D/C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농가들이 받는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축령원에서 발표하는 가격은 농장에서 실제 받는 가격이 반영되지만 가격 변동 폭이 커 조사방법에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양계협회나 축령원에서 하는 가격 발표는 유선상으로 거래상황이나 유통상황을 파악하여 발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 혹은 보다 공신력 있는 가격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표 1. 국가별 계란가격 결정 방식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계란가격 결정 방식</th>
</tr>
</thead>
</table>
| 미국 | - 국내 표준가격에 의하여 가격 결정  
- 표준가격은 계란 평균 생산비에 근거로 함  
- 실거래가격은 국내표준가격을 기본으로 거래 당사자들의 홍청에 의하여 결정 |
| 일본 | - JA농협(주)가 메일계란의 상장가격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발표  
- JA농협(주) 영업기획과장 책임에 전달의 시점을 바탕으로 거래농장 (생산자등)로부터 받은 계란이 원활히 소진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발표  
- 실거래 가격은 거래당사자들이 홍청에 의하여 결정 |
| 중국 | - 전국 40여개 계란 도매시장 관리위원회에 메일 상인로부터 가격을 조사, 농업부 정책에 보고  
- 보고된 가격은 중국 농부용 홈페이지에 게시  
- 게시된 가격은 지역 내 모든 계란 거래에 적용 |

자료: 기금수급안정위원회(2009)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고 있으며, 이 가격은 인터넷이나 일본경제신문에 지역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이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매시장에서 관리 직원들이 가격을 조사, 정부에 이를 보고하고 농업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이 지역 내 모든 계란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광역 GP를 통한 공판 기능 확대 필요 성 제기

우리나라도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발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든 가격 GP를 통한 공판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계협회, 축성원, 농협 등에서 발표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신뢰성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

즉, 농가, 유통상인, 소비자 등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기준가격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매가격이 있는 농축산물이라면 물라도 계란처럼 경매가격이 없는 품목은 공정한 기준가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9년 발행된 계란수급안정위원회에서 계란가격 결정 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농협 등이 주도하여 계란 GP센터에 계란 공판장 기능을 실려 실거래 가격을 인터넷 등에 띄우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계란 공판장 기능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질 수 만 있다면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계란공판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두 곳(해밀, 포천축협)으로 전국 시세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다. 향후에는 광역계란유통센터가 각 지역마다 최소한 1개씩 만들어서 그곳의 공판 기능을 갖고 발표가 이루어지면 보면 자연스럽게 대표 가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 당장 광역 GP센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의무화되었고 작업장도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좋고 처리량이 많은 곳을 광역계란유통센터 기능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계란유통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주력구구식으로 파거의 관행을 닦승하는 것은 탈피하여야 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계란가격 결정을 통해 계란유통구조의 모순을 없애기야 할 것이다. 계란 가격 담합문제로 생산자들과 유통인들이 서로 고소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계란산업이 정착되기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